

# 회답송

연중 제32주일 가해  
(평신도주일)  
2020년 11월 8일

최정자 소화데레사

시편 63(62), 2.3-4.5-6.7-8(© 2=참조)

Fine

주 님, 저 의 하 느 님, 제 영 혼 당 신 을 목 말 라 하 나 이 다.

8

1.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 느 님,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 이 다.  
2.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 려 고,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 이 다.  
3.이렇듯 제 한 평생 당신을 찬미 하 고,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 다.  
4.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 하 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 이 다.

10

D.C

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 이 다. 물기없이 마르고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 이 다.  
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 기 에,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 이 다.  
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 불 러,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 이 다.  
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 으 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 이 다.

(주보용)

주 님, 저 의 하 느 님, 제 영 혼 당 신 을 목 말 라 하 나 이 다.